

미사일 이어 헬기·탱크까지…가자시티 초토화 되나

이스라엘, 대규모 화력 동원 총공세
공중·해상 지원에 지상군 수만명 추가
주민 피난 37%선…사상자 크게 늘 듯
유엔 사무총장 “용인할 수 없다” 맹비난

가자시티 완전장악을 위한 지상 작전 돌입을 전격 선언한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에도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162사단·98사단 등 2개 사단이 가자시트를 향해 점령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36사단도 조만한 합류해 수만 명 규모 병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에서 작전 중인 병력들이 공중·해상의 화력 지원을 받았으면서

“화력 지원으로 테러리스트의 기반시설을 타격했다. (이스라엘군) 작전 장병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군사 시설, 관측소, 부비트랩 구조물 등이 그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오후 10시께 가자시티에 대한 전면 장악 지상작전에 돌입했다. 로이터통신은 작전 돌입 후 이날까지 밤새 가자시티에 대한 공습이 계속됐으며, 지상에서는 탱크의 진격이 이어졌다는 목격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현장 동영상에도 이스라엘군 탱크가 줄지어 가자시티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BBC는 이스라엘군의 아파치 공격헬기가 가자시티 상공을 순회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갔다는 목격자 증언을 보도했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 중에 가자시티 인근 텔알하와, 리말 등 지역에서 병력수송장갑차(APC)에 폭발물을 실어 원격조종식으로 폭탄을 투입하는 전술을 활용했다. 이번 작전 후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공격에 고층 빌딩이 무너지면서 일부 주민이 잔해에 깔리는 사고가 다수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주민들이 매몰 건물의 잔해 속에서 피해자 구조를 시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돌입 전, 주민들에게 “가자시티는 위험한 전투지역으로 간주된다”며 대피를 경고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추산으로도 전체 거주민 약 100만 명 가운데 대피를 완료한 주민은 37만 명에 그친다. 유엔이 이

날 발표한 대피자 수 추산치는 이보다도 더 적은 22만 명에 불과하다고 TOI는 보도했다. 다만 장악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피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이틀간 가자시트를 떠난 피란민이 4만8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중에서 사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가자시티 장악 작전 돌입을 가장 먼저 보도한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는 작전이 시작된 전날부터 이날까지 팔레스타인 주민 5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은 끔찍하다”며 “이런 일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폴란드 잠수함 사업 한화도 수주 도전장

“8조 원 규모…조달 이번 주 결정”

폴란드가 해군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잠수함 조달 관련 결정을 이번 주 안으로 내릴 것이라고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하며 “입찰 제안서를 검토했고, 이제 폴란드 정부가 프로그램 파트너를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잠수함 구매를 결정하도록 약속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약 8조 원 규모 해군 현대화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신형 잠수함 3척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저전 역량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한 위협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더 긴밀히 보조를 맞추려는 조치다.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전에는 한국 한화그룹을 비롯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웨덴 사브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이 뛰어들어 경쟁 중이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영국 스텐스데드 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국빈 방문 일정에 나선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英 국빈 방문에…빅테크 수십조 원 투자 화답

英 2회 국빈 방문한 첫 미 대통령
MS·구글·엔비디아 등 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8년까지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억 달러(약 41조4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위한 155억 달러의 추가 자본 확장과 인프라 운영을 위한 151억 달러의 운영비가 포함된다고 MS는 설명했다. MS는 이번 투자를 통해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엔스케일(Nscale)과 협력해 2만3000개 이상의 고급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영국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도 영국에 50억 파운드(약 9조4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연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로

영국에서 연간 825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영국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국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영국 안팎에 구축되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110억 파운드(약 20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에 자사 기술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일보, 무공훈장 찾아주기 국민 참여 캠페인

국방일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조사단과 함께 ‘무공훈장 찾아주기 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명단에 있는 수훈 당사자이거나 수훈자를 아는 분은 조사단 공식 전화 번호 1661-7625로 연락하면 무공훈장 수훈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군번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성명		지역
권태익	박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복만	박소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권태익	이강섭	부산광역시 사상구	김군찬	오국희	부산광역시	김명이	박재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김경규	안영춘	부산광역시 영도구
김광명	서상찬		김성진	박정남		김순영	이문근		김동복	오용을		김복만	박정남		김대영	유기상	
김대생	유창규		김소암	유정기		김우규	이용원		김명실	이인수		김석기	옥귀현		김덕상	이근하	
김상오	장이도		김영두	이원이		김정식	이정화		김삼암	이호진		김성문	이만우		김문배	이인수	
김영준	정대수		김이갑	이태규		김종수	장성영		박정목	임명봉		김성수	이원이		김영도	이일교	
김용달	정태모		김인조	임종구		김현구	전야관		서성윤	조자영		김성진	이태규		김용길	이정화	
김인수	조영수		김정근	정일호		신동민	조영수		손영희	천경채		김우암	장유찬		박남국	조승문	
노승국	조희율		문병석	조선학		신창진	최득용		송홍덕	최동규		김이갑	정기숙		박정남	최성길	
문창욱	최종선		박두호	최병남		오국희	최병남		심석순	최영화		김인조	정일호		백상호	최호순	
박문하	추소준		박문하	최장길		오영국	최치학		임재동	최일만		김종수	최장수		신동민	홍태일	